

경주 농어촌공사, 228억원 규모 '농지은행사업' 추진

등록 2023.02.06 15:03:18

기사내용 요약

공공임대형 농지매입 등 4개 부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경주=뉴스시스] 이은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올해 228억 원 규모의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175억 원, 농가 경영 회생에 21억 원, 농지연금 26억 원, 농지매입 자금 대출로 규모화에 4억 원 등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농과 고령 은퇴자, 부채 농가 등을 돕고 지역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

그중 공공임대용은 매각을 희망하는 논·밭·과수원을 사서 영농 초기 단계에 농지확보가 어려운 2030 세대와 귀농인 등에게 우선 임대한다. 농촌 정착을 돕고 후계농업인을 양성한다.

농가 경영 회생 지원은 고액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최장 10년 동안 임대하고 당사자에게 환매한다.

또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84건을 지급했으며 올해 신규로 33건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지은행관리부(054-772-999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관우 지사장은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자금 확보와 위기극복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